

# 의미점화와 추론을 통한 연상 조음사의 처리

윤홍옥, 이성범, 조숙환, 전영진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Processing of the Associative Anaphor through Semantic Priming and Inference

Hong Oak Yun, Sungbom Lee, Sook Whan Cho, Youngjin Chun  
Dept. of English, Sogang University

### 요 약

우리의 기억에 표상되어 있는 개념의 본질과 근원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연상과 기억구조의 관계에 집중 되어 왔다. 따라서, 어떤 한 개념과 다른 한 개념이 관계되어 있다는 의미적 혹은 연상적 점화의 양상은 의미기억 구조를 적절히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휘수준에서 보여지는 연상의 양상이 문장수준에서도 유사한 예측을 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휘수준에서 연상적 관계에 있는 두 개념이 선행사와 연상 조음사라는 문법성을 띠면서 문장에서 예상되는 역할을 수행할 때는, 의미기억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 예측되며, 이것은 문장의 의미·화용적 추론의 기제로 유인되고 있음을 제안하려고 한다. 또한, 의미·연상적 점화와 추론의 기제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문장의 응집성과 처리속도 간에도 유의미한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1. 서론

연상주의(associationism)는 정신의 활동과 의식의 흐름 내에서의 역동적 관계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실험심리학에서는 이런 연상을 통한 정신의 활동을 추적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억의 구조를 예측하려 한다. 기억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신활동의 한 표출 형태인 언어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기억과 개념, 그리고 언어와의 상호적 연관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상 조음사(associative anaphor)라는 언어학적 대응적 현상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는다. 연상 조음(associative anaphora)이란 대명사가 조음사(non-pronominal)가 주어진 문맥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선행사와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특이한 형태의 대응적 현상이다(Charolles, 1999). 이것이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연상 조음사가 지시하는 대상은 문맥 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전달하는 데, 이러한 신정보

의 해석은 선행사(antecedent)가 제시하는 구정보(old information)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선행사는 조음사를 연상에 의거하여 결속하며, 조음사는 선행사와 부분적 공지시(co-indexed)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한정적(definite)이면서 지시적(referential)인 기능을 하는 어휘적 요소(lexical marker)로 표현되어, 담화 혹은 대화의 처리를 유용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공지시성을 표현하는 어휘요소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되는 어휘적 요소에 의존하기 보다는 문법적 관계에 있는 두 개념 간의 연상적 용이성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선행사(점화어, prime)가 조음사(목표어, target)를 의미·연상적으로 점화하는 강도가 강할수록 조음 관계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공지시적 해석과 문법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연상 조음사는 위의 논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증하는 연상 조음사의 공지시성 또한 무리 없이 처리할 때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현상을 설명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 먼저, 2장에서는 연상 조응사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3장에서는 의미·연상 점화 이론과 연상조응사의 화용적 제약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설명력 있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가설 및 실험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 2. 연상 조응사의 종류

연상 조응사는 선행사(점화어)와 조응사(목표어)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2.1 분의적 관계 (meronymic relation)

어떤 A와 B가 분의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B is part of A'의 의미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에 따른 연상 조응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달력을 받았는데, 풍경이 아주 멋있다.
- (2) 외식을 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 혼났다.
- (3) ??사과를 먹었는데, 나무가 잇몸을 찢었어.

### 2.2 속성적 관계 (attributive relation)

어떤 A와 B가 속성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B is one attribute of A'의 의미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에 따른 연상 조응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 스피커를 샀는데, 소리가 아주 좋다.
- (5) 딸기가 재철이다. 색깔이 너무 곱다.
- (6) 잠전에 갈치를 만졌더니, 비린내가 난다.

### 2.3 행동-결과 논항 관계 (action-resulting argument relation)

어떤 A와 B가 행동-결과 논항 관계에 있다는 것은 'B is caused by an action of A'의 의미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에 따른 연상 조응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7) 보혈을 들었는데, 돈은 둘째가 받는다.
- (8) 남편이 죽자, 미망인은 실성했다.

## 2.4 기타 연상 관계

위의 의미적 관계로 포착해 내기 어려운 그러나, 연상되는 관계이다. 이 관계에 따른 연상 조응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9) 극장가자. 공짜표가 생겼어.
- (10) 김치 담그는 구나. 통은 준비했니?
- (11) 소설을 샀다. 작가가 낮익었기 때문이다.

## 3. 의미·연상 점화 이론과 연상조응사의 화용적 제약

### 3.1 의미·연상 점화 이론

초기 의미기억에 관한 모델은 지식의 표상이 개념들 사이에 고정된 관계로 있어서, 어떤 개념의 연상은 복잡한 연상망에서 연상경로(associative pathways)를 통해 확산되어 활성화 된다는 Spreading Activation Model(Anderson, 1976)이 우세하다. 점화어에서 목표어까지의 거리는 연상의 강도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념은 빠르고 강한 연상을 활성화시킨다(Lorch, 1982; Reder & Anderson, 1980). 최근 Spreading Activation Model에서는 연상적 점화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서로 연상된 단어가 의미기억에 표상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시된 단어에서 연상된 단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Anderson, 1995)라고 하면서, 단어를 처리한다는 것은 그 의미에 해당하는 의미기억 속의 개념마디(semantic node)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연상의 강도에 영향 끼치는 맥락적 요소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의미기억이란 개념간에 발행하는 맥락으로 구성된 신호(cue)를 사용할 때,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Compounding Cue Theory(McKoon & Ratcliff, 1992)가 있다. 기억의 복구는 맥락에서의 친숙성의 정도에 의존하여, 높은 친숙성이 의미적 점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위 두 이론 간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양 이론을 접합시킨 Distributed Attractor Network가 있다. 이 이론에서는 활성화된 개념이 방사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위(units)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에서는 Spreading Activation Model의 측면이 있고, 어떤 개념이 활성화되는 정도는 해당 개념과 그 패턴의 겹쳐지는 정도, 즉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에

서는 Compound Cue Theory와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심리학적 점화이론에 의한 어휘수준의 연상강도는 연상 조음사 문장의 응집성을 유용하게 예측해 낼 수 있다.

- (4) 스피커를 샀는데, 소리가 아주 좋다.
- (5) 딸기가 제철이다. 색깔이 너무 곱다.
- (6) 갈치를 만졌더니, 비린내가 난다.
- (7) 보험을 들었는데, 돈은 둘째가 받는다.
- (10) 극장가자. 공짜표가 생겼어.
- (11) 김치 담그는 구나. 통은 준비했니?
- (12) 소설을 샀다. 작가가 낮익었기 때문이다.

위 예문에서 <스피커, 소리>, <딸기, 색깔>, <갈치, 비린내>, <보험, 돈>, <극장, 표>, <김치, 통>, <소설, 작가>의 점화된 쌍은 의미·연상 네트워크에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점화어에서 목표어로의 연상이 성립된 이상, 두 개념사이에 의존한 문장의 처리는 조음적으로 결속하는 해석을 낳게 한다.

Charolles

(1999)는 연상 조음사는 선행사의 '제1등급요소 (first degree ingredient)'라 하여, 강한 연상이 전제됨을 강조하였고, Kleiber(1999) 역시 이들 개념들은 '내적으로 연결(intrinsic link)'된 강한 연상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일부에서는 시간경과와 안구 추적실험 등을 통해, 연상 조음사의 처리는 조음사의 개념적 특질 및 연상의 강도에 크게 의존함을 입증해보이고자 했다 (Lavigne-Tomps & Dubois, 1999).

문제는 연상 조음사의 해석이 단순히 어휘간의 연상강도의 문제가 아닌, 화용적 조정(pragmatic accommodation)인 추론(inference)의 과제를 동반할 경우이다.

- (2) 외식을 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 혼났어.
- (3) ??사과를 먹었는데, 나무가 잇몸을 찢었어.

예문 (2)는 <외식, 생선요리, 가시>에로의 쌍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선요리'의 중재 없이도, 연상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을 <외식, 가시>의 쌍을 추론하는데 어렵지 않다. 반면, (3)는 <사과, 나무>의 쌍에서, 1차적으로 <사과, 과수원, 나무>와 같은 연상을 먼저 할 수 있으나, 이 연상의 쌍은 문장에서 적절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노력으로 <사과, 이쑤시개, 나무>의 쌍은 문장에서 적절한 해석을 낳을 수 있으나, (3)과 같이 '이쑤시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두 번째 쌍을 처리하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의미·연상 네트워크 이론으로는 (2)와 (3)의 문장처리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아쉬운 점을 남긴다.

### 3.2 연상조음사의 화용적 제약

화용론에서는 '전형성 제약(Constraint of Stereotypicality)'과 '비이행성 제약(Constraint of Non-transitivity)'을 들어, 연상에 의해 점화된 개념이라 할지라도, 연상 조음사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harolles, 1999). 전자는 점화자와 목표어가 전형적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후자는 두 개의 개념이 '이행적 관계'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다. 그러나, 이행적 관계라 할지라도, 두 개념간의 전형성이 강하여, 강한 추론을 일으킬 경우에는 맥락에 따른 화용적 조정의 과정을 거쳐, 연상 조음사가 허락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위 (2)는 비이행적 제약에 도전하는 예이다. '외식'과 '가시'는 이행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둘사이의 관계가 허락될 수 있는 이유가 관계의 전형성에 의존한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2)와 유사한 절차로 의미점화를 일으키는 (3)이 비문법으로 받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휘간 내적연결을 언급하면서 이들 간의 전형성을 좀더 강조했던, Kleiber의 '분리의 조건 (Condition of Alienation)'과 '존재론적 일치 원리 (Principle of Ontological Congruence)'는 의미·연상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아쉬움을 여전히 안고있다.

예문 (2)와 (3)은 연상 조음사를 이해하는데, 다른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실험조사는 연상 조음사를 허가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연상의 강도 뿐만 아니라, 연상 조음사의 해석에 관련한 맥락 정보일 것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휘몽치를 조사해보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과를 통해 연상 조음사의 해석이 일방향(serial)인지 혹은 병렬적(parallel)으로 진행되는 지에 관한 논의와 전방추론(forward inference)과 후방추론(backward inference)에 관한 논의도 뒤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가설 및 실험조사

##### 4.1 가설

본 실험조사는 연상 조음사의 해석 및 허가 조건은 선행사(점화어)와 조음사(목표어) 간의 연상의 강도 이외에 문맥상에서 어떤 기타의 맥락 정보에 의존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 정보는 두 개념간의 연상관계와 상호 작용하여, 화용적 추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 4.2 실험조사 방법 및 데이터 구성

연상 조음사가 각기 다른 수위의 정보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문을 네 가지 어휘 뭉치로 절개한다. 응답자는 각각의 어휘 뭉치를 읽자마자 자동적으로 가장 빠르게 연상되는 개념을 지시된 곳에 적는다. 네 개의 뭉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예) 스피커를 샀더니, 소리가 좋다.

전방1 정보: 스피커 → \_\_\_\_\_

후방 정보: \_\_\_\_\_은/이 ← 좋다

전방2 정보: 스피커를 샀더니 → \_\_\_\_\_는/가

전체 정보: 스피커를 샀더니, \_\_\_\_\_가 아주 좋다.

이때, ‘전방1정보’란 연상적 점화를 일으키고, 선행사가 될 만한 명사만 제시해주는 것을 말하고, ‘후방정보’란 점화된 목표어인 연상조음사의 서술어만 제시해주는 것이며, ‘전방 2정보’는 선행사가 포함된 절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체정보’는 연상조음사, 목표어를 제거한 나머지 전체 문장을 모두 제시하는 뭉치를 말한다. 질문지의 문항은 본문 2.1부터 2.4에서 제시한 연상 조음사 별로 각각 3개의 예문을 네 단위로 절개하여 조작하였고, 이를 서울 및 근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4.3 실험 결과

실험조사결과는 각각의 뭉치에서 연상되는 개념의 빈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빈도의 결과를 고찰한 결과, 연상 조음사의 해석·처리에는 어떤 유형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아래 <표1>은 각 유형의 정보제시 뭉치별 연상·개념의 빈도수를 보여 준다.

<유형1> 보험을 들었는데, 돈은 들체가 받는다.

<유형2> 스피커를 샀는데, 소리가 아주 좋다.

<유형3> 의식을 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 혼났어

<유형4> 사과를 먹었는데, 나무가 잇몸을 찢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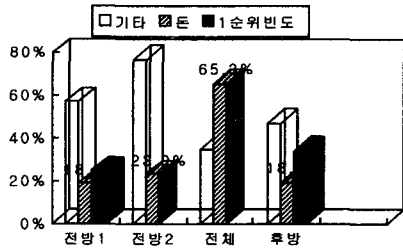
<표 1: 정보제시 뭉치별 연상 개념 빈도><sup>1</sup>

	전방 1	후방	전방 2	전 체
1 유 형	설계사 28	선물 38	돈 24	돈 68
	돈 21	돈 21	사기 13	혜택 2
	사고 20	공 12	엄마 10	기타 8
	생명 13	상,칭찬 9	보험 5	
	사기 5	편지,전화 7	생/사(고) 5	
	기타 22	기타 21	기타 11	
2 유 형	음악 33	사람,친구 32	음질소리 48	음질소리 77
	오/라디오14	날씨 10	고장 17	성능 21
	소음 14	음악,영화 8	성능기능 12	음악 1
	cd/dvd 5	물건 7	라/오디오 5	디자인 1
	엠프 2	기분 7	음악,노래 5	
	기타 28	상태 2	가격,돈 2	
		기타 8	기타 8	
3 유 형	음식(명) 43	가시 28	음식(명) 23	가시 55
	식당 20	뼈 1	음식(맛) 14	음식 9
	가족 15	음식 1	기분 12	뼈 8
	돈 6	바늘 1	베탈,소화 9	고기 5
	기분 5	킷술 1	돈 5	껍질 1
	도구 4	나뭇가지 1	가족 5	돈,냥비 2
	저녁 1	기타 3	기타 17	기타 6
4 유 형	과일 37	가시 33	맛 34	씨 47
	색깔,빨강12	이쑤시개 9	과일 19	껍질 9
	백설공주 9	음식 5	이,잇몸 10	포크 9
	칼 8	기타 4	벌레 6	사과꼭지 5
	과수원 4		피부미용 4	이쑤시개 3
	뉴우튼 3		베탈 4	사과속 3
	나무 2		기타 18	기타 9
	기타 25			

먼저, <유형1>을 살펴보자.<유형1>에서는 점화어와 목표어가 ‘전방1’과 ‘전방2’에서 각각 강한 연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장 제시 순서에 의해 일방향(serial)으로 전방추론(forward inference)을 한다고 가정된다. Lavigner-Toms, F and Dubois(1999)의 따르면, 이와 같은 <유형1>의 문장에서는 ‘보험’이 언급되는 전방1에서 강한 연상관계에 있는 ‘보험금(돈)’을 어느 정도 예견한 채 문장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유형1>의 빈도분포를 도표화하여, 예문 대로 ‘돈’이 연상 조음적으로 해석되는지 문장 처리적 측면에서 예측을 해보자.

<sup>1</sup>복수응답은 각기 다른 빈도수로 계산하였으며, 무응답도 %수치에는 집어넣어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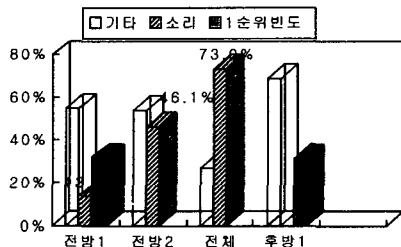
<도표1: 유형1의 문치별 연상개념 빈도>



전방1 보험을... ⊙-(2순위)  
 전방2 보험을 들었는데 ⊙-(1순위)  
 전체 보험을 들었는데 돈은 둘째가 받는다.  
 후방 ⊙-(2순위) 받는다

<유형2>은 점화어와 목표어가 ‘전방1’에서는 <유형1>보다 덜 강하지만, ‘전방2’의 앞 절에 해당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둘 사이의 연상을 매우 강하게 예측한다. <유형2>도 <유형1>과 마찬가지로 문장 제시 순서 대로 일방향(serial)으로 전방추론(forward inference)을 진행한다.

<도표2: 유형2의 문치별 연상개념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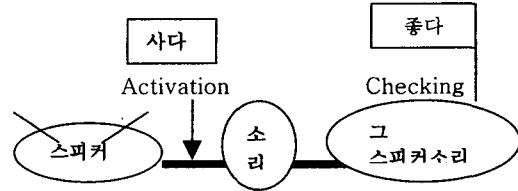


전방1 스피커를... ⊙-(2순위)  
 전방2 스피커를 샀는데, ⊙-(1순위)  
 전체 스피커를 샀는데, 소리가 아주 좋다.  
 후방 ⊙-(안나옴) 좋다

재미있는 점은 <유형1>과 <유형2>의 ‘후방1’은 가능한 개념을 탐색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보다는, 이미 ‘전방1과2’에서 강한 목표어로 점화된 개념의 용이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이러한 근거는 <유형2>의 ‘후방’에선 목표어 ‘소리’라는 개념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추론이다. 또한 <유형1>의 ‘후방’에서도 빈도의 순위는 낮아지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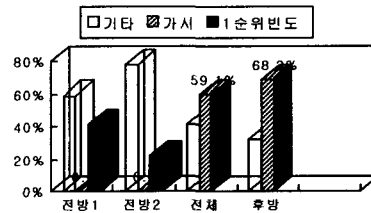
와 같이, 제공되는 정보량에 따른 연상의 강도에 의존한 조음적 해석의 양상은 의미·연상 네트워크의 개념마디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도식1: 유형1과2의 연상의미점화의 양상(가상)>



그러나 <유형3>과 어색한 문장인 <유형4>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유형3>은 전방추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전방1’와 ‘전방2’에서 연상의 작용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도표3: 유형3의 문치별 연상개념 빈도>



전방1 외식을... ⊙-(0순위)  
 전방2 외식을 했는데, ⊙-(0순위)  
 후방 ⊙-(안나옴) 목에 걸리다  
 전체 외식을 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 -(1순위)  
 전체 외식을 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 고생했다.

그래프에서처럼 <유형3>은 ‘전방1’과 혹은 ‘전방2’에서 모두 ‘가시’라는 개념을 연상 점화 하지 못한다. 그러나, ‘후방’에서 서술어 ‘목에 걸리다’가 전달해 주는 정보는 ‘가시’의 개념을 강력하게 추론하게 하고, 이 후방추론(backward inference)은 ‘가시’를 ‘외식에서 먹었던 음식에서 있었을 가시’라고 병렬적(parallel)인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강력한 추론의 근거는 서술어 ‘목에 걸리다’가 논항 ‘가시’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둘 사이의 어떤 관계적 의미 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걸리다<sup>2</sup>: [V, + \_\_PP: 양쪽 끝이 어디에 닿아 허공에 가로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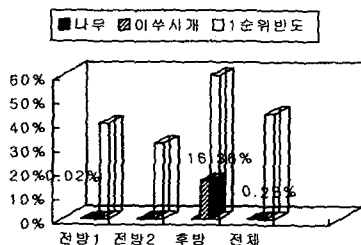
<sup>2</sup>연세국어사전

목에 걸리다: {V, + \_\_\_in a throat: 양쪽 끝이 목 안에  
달라 허공에 가로놓이다}  
논항: [N, +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포함된 것]  
[N, + 삼키려고 의도했던 것]  
[N,+목안에 놓일 정도로 충분히 작은 것]

위와 같은 의미적 관계에 의한 추론은 화용적 조정(pragmatic accommodation)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Charolles(1999)는 <외식,가시가 있는 음식,가시>의 순서로 비이행성 관계에 있는 개념이 <외식,가시> 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전형성(stereotypicality)'과 더불어, 문맥에 근거한 조정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유형3>의 예를 '전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긴 다소 어려움이 있겠고, 추론의 역할이 주요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화용적 추론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알맞은 분석이겠다.

그러면, <유형4>와 '화용적 조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유형4>도 <유형3>의 예와 마찬가지로 '전방1'과 '전방2'에서 연상적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 혹여, 제공받는 다고 할지라도, 목표어 '나무'는 중의적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사과, 사과나무>의 쌍이고, 둘째는 <사과, 이썬시개, 나무>의 쌍이다. 문제는 <표1>에서 나타난 바 대로, '전방1'을 제외하곤, 어느 단계에서도 '나무'를 연상하지 않는 점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쌍을 고려해보자. 비록 높은 빈도수는 아니었지만, '잇몸을 찌르다'가 제공되는 '후방'에서 '이썬시개'는 추론 된다. 그러나, 추론된 '이썬시개'는 '그 이썬시개의 나무'라는 조용적 해석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과,이썬시개,나무>에서는 왜 <사과,나무>에로의 '화용적 조정'을 못 일으키는 것일까 그리고 이 조정은 제약되는 것일까? 이번 <유형4>의 개념빈도수를 '나무'와 '이썬시개'를 주요로 하여 살펴보자..

<도표4: 유형4의 문치별 연상개념 빈도>



전방1 사과를  
전방2 사과를 먹었는데, ?나무(안나옴)/이썬시개  
후방 ?나무(안나옴) 잇몸을 찢었어.  
전체 사과를 먹었는데, ?나무(안나옴)/이썬시개/씨(1순위)가  
잇몸을 찢었어  
앞의 <유형3>은 후방추론의 정당성을 서술어와  
논항 간의 의미적 속성에 근거하였다. <유형4>의  
의미적 관계를 살펴보자.

찌르다<sup>3</sup>: [V, + \_\_\_NP: (끝이 뾰족한 것을 몸)에 세 차게  
들어밀다]  
잇몸을 찌르다: [V, \_\_\_: 끝이 뾰족한 것을 잇몸에 세차게  
들어밀다]  
논항: [N, + 입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  
[N, + 나무로 만들어진 것]  
[N, + 찌를 수 있을 정도로 뾰족한 것]  
나무<sup>4</sup>: [N, 줄기와 가지가 크고 단단한 여러 해 살이 식  
물]  
[N, 나무를 잘라서 손질을 한 건축이나 가구의  
재료]  
[N, 연료로 쓸 풀이나 나무]

<유형3>의 '나무'의 의미적 속성은 서술어 '잇몸을 찌르다'의 논항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적합한 의미적 속성은 서술로부터의 연상적 추론을 제약하고, 문맥에 근거한 '화용적 조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 5. 결론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을 통해서 연상 조용사가 연상과 화용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조용사로 해석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방추론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연상 조용사를 처리하는 개념들은 <유형 1,2>처럼 의미·연상적으로 점화된 네트워크 안에서 강한 관계에 있는 경향이 있다. 반면, 네트워크 안에서 강하지 않은 관계에 있으나, 연상과 추론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두 개념간의 관계된 의미적 속성에 근거한 화용적 조정의 활동이다.

이상의 논의는 문장의 응집성(coherence)에 대한 다른 측면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용사가 가지는 문법적 특성 중 하나는 문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앞 문장에서 제시된 선행사와

<sup>3</sup> ibid

<sup>4</sup> ibid

의 연상작용을 통해, 접화된 조응사가 문장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연상 조응사는 분포의 제약을 갖게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연상 조응사의 분포제약에 관련한 실증적 실험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1] Anderson, J. R.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 New York: W.H. Freeman, 1995.
- [2] Charolles, M. "Associative Anaphora and Its Interpretation," *Journal of Pragmatics* 31, pp. 311-326, 1999.
- [3] Kleibor, G. "Associative Anaphora and Part-whole Relationship: The Condition of Alienation and the Principle of Ontological Congruence," *Journal of Pragmatics* 31, pp.339-361, 1999.
- [3] Lavigner-Toms, F and Dubois, D. "Contextual Effects and Associative Anaphora in Reading," *Journal of Pragmatics* 31, pp.399-415, 1999.
- [5] Lorch, R. F. "Priming and Search Processes in Semantic Memory: A Test of Three Models of Spreading Activa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1, pp.468-492, 1982.
- [6] McKoon, G. and Ratcliff, R. "Spreading Activation versus Compound Cue Accounts of Priming: Mediated priming revise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8, pp. 1155-1172, 1992.
- [7] Plaut, D.C. "Semantic and Associative Priming in a Distributed Attractor Network," *Proceedings of the 17<sup>th</sup>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 37-42, 1996.
- [8] Ratcliff, R and McKoon, G. "A Retrieval Theory of Priming in Memory," *Psychological Review* 95, pp.385-408, 1988.
- [9] Thomspon-schill, S, Kenneth, J.K. and John D.E. Gabrieli. "Effects of Semantic and Associative Relatedness on Automatic Prim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8, pp. 440-58, 1998.